



[해설] LG 이어 삼성·SK도 분사? K-배터리 지각변동 03



Economy

코스피	2343.31 (+43.15)	코스닥	818.46 (+15.51)
금리 (미국 3년)	0.980 (+0.009)	환율 (원/달러)	1134.10 (+0.50) (3일)

# 26조 풀어 한국판 뉴딜 공급자로 ‘신한 네오’ 통해 新디지털금융 선도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 3부. 디지털 뉴딜

### ① 신한금융지주

한국판뉴딜 선점은 도약 기회 ‘신한 네오’ 그룹사 힘 모아야 신성장동력발굴 체계적 지원

핵심 금융서비스 디지털화 AI활용 다양한 서비스 도입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할 금융뉴딜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 네오(N.E.O·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를 내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신한이 금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신한금융의 새로운 성장전략이기도 하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범 국가적 사업이자 새롭게 열리는 시장으로 이를 선점하는 것이 신한에게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융의 뉴딜인 신한 네오 프로젝트의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그룹사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국판 뉴딜에 26조원 투입

신한 네오 프로젝트의 3대 핵심방향은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 성장생태계 조성 등이다.

먼저 신한금융은 뉴딜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4년간 약 26조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혁신 대출이 16조원이며 ▲혁신투자 1조원 ▲녹색금융 9조원-대출 5조원 ▲투자 4조원 등이다.

신디지털금융선도를 위해서는 자체 디지털 가속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 데이터거래소 활성화에 앞장선다.

핵심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보다 넓은 산업영역과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기업금융의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기업금융의 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각 그룹사별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AI 기반 지능형 상담서비스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Project)’ 실행력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신한금융지주 본점 회의실에서 조 회장은 그룹사 CEO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



으며, 신한카드 역시 음성 AI 플랫폼을 활용한 AI 상담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신성장생태계 조성으로는 ‘신한 트리플(Triple)-K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서울, 인천, 대전에 스타트업 파크를 운영 및 설립 중에 있다. 향후 부산, 광주, 제주까지 조성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에는 뉴딜 사업의 기초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입주시키고, 입

주기업에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한다.

#### ◆조용병의 ‘디지털 퍼스트’

신한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지향점은 ‘디지털로 그(Digilog)’다. 디지털과 야날로그의 선순환을 가속화해 금융기업으로서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번에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강조했던 조 회장이 직접 챙길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양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회장 정의선’ 첫 행보는 노조 만난 현장경영

울산공장에서 노조 만나 면담 ‘신산업시대 함께 헤쳐 가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인재경영·현장경영 등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취임 후보를 여관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만나 자동차 산업 격변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요청하는 등 노사 화합에도 집중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의선 회장은 미래차 글로벌 1위 국가 달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의 기반이 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안내했다. 현대차그룹의 수장으로서는 만나는 첫 자리였다.



정의선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경영진과 이상수 현대차 지부장이 노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

그동안 정부가 친환경차를 국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은 꾸준히 호흡을 맞춰왔다. 문 대통령이 수소차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선 회장은 기술력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넥소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

다. 글로벌 최고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가 상용화시킨 넥소는 현재 존재하는 수소차중 가장 최신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넥소는 지난달 기준 내수 시장에서 1만대를 넘어서는 기록을 작성했다.

또 그룹 총수에 오른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수소 경제’를 선택한 정의선 회장은 글로벌수소위

원회 공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의 수소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의선 회장의 행보는 선대 회장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과 현장경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실무에 있을 당시 주기적으로 해외 생산 기지를 방문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중요행사에 빠지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를 근거리에서 학습한 정의선 회장 역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8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社告

## 메트로경제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 ‘AI+빅데이터’ 트렌드 공유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의 AI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사건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AI에 주목하며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4년 여가 지난 올해, 미국의 오픈에이아이가 개발한 AI 언어모델인 ‘GPT-3’는 아직 AI가 ‘내로우 AI’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제너럴 AI’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를 만들어낼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선보여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AI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댐’ 사업이 주축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AI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AI의 성능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는 올해 ‘데이터댐’에만 추정 예산 5000억원이 투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양질의 데이터와 결합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대표 IT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지 등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는 이미 지난 1~2회(2016~2017년)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AI 시대의 도래를 발빠르게 예견했으며, 지난해 개최된 4회 포럼도 ‘일상 속으로 들어온 인공지능(AI)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 주제: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14:00~17:00
- 장소: 서울 중구 청파로 464번지 LW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축사: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과 인공지능-비즈니스모델 연구소장)
- 강연 1: 이경일 솔트룩스 CEO
- 강연 2: KT 정영조 마스터
- 강연 3: 오승택 에이모 대표
- 등록: 사전등록, 홈페이지 접수(www.metroseoul.co.kr) 접속: 참가 신청자 이메일로 개별공지
- 문의: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공시가 90%까지 상향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6억원 미만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시세)을 90%까지 높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